

방치해 놓은 보일러 잘 쓰려면... 연결부위 살피고 보온처리

배기통 상태 육안으로 확인
수도관·가스관도 점검 대상
겨울철 전원플러그 'ON'

시간이 11월로 넘어오고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짝 다가가면서 그동안 무심히 방치해왔던 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온도가 내려가고 한파가 찾아와 준비도 없이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이나 낭패를 당할수 있어 사전 준비와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평소 온수를 이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가끔씩 가동했다고 해도 본격적인 난방을 위한 준비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필요하다.

4일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회사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조언을 받아 겨울철 보일러 관리 요령을 알아봤다.

우선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엔 외부에 있는 배기통(연통)을 육안으로 살펴봐야 한다. 올해의 경우 잦은 태풍과 강한



경동나비엔 직원이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직원이 자사 보일러를 점검하고 있다.

/귀뚜라미

바람 등으로 인해 아파트나 주택 밖으로 나 있는 보일러 배기통의 찌그러짐, 막힘, 꺾임, 구멍 등 손상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중에서도 연결 부위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배기통에 문제가 있다면 설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배기통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는다면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도 있다.

보일러와 이어진 수도관과 가스관 연결부위도 점검 대상이다.

수도관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누수가 있어도 약간의 한파에 관이 얼어 작동이 멈출 수 있다. 가스관 연결부위는 비눗물을 이용해 누설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요즘엔 가스검침원이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해주기도 하지만 개별 가정에서 직접 점검을 하는 것도 만에 하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온재를 이용해 냉·온수 및 난방 배관을 처리하는 것도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보일러는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보일러실은 환기가 잘 되는지, 보일러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들은 없는지, 단열 상태는 괜찮은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만약 보일러가 보일러실이 아니라 비바람에 쉽게 노출된 곳에 있다면 커버를 열고 각종 부품들이 부식되지 않았는지, 또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봐야 한다.

난방필터를 빼내 깨끗한 물에 씻어 건조한 후 다시 부착하는 것도 난방효

율을 높이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다. 난방필터 교체 및 청소 요령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제조사들의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여름엔 보일러 전원플러그를 분리해놓으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낙뢰로 인한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겨울철에는 동결방지 기능이 작동하도록 장기간 외출할 때도 항상 켜놓아 보일러나 배관의 동파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외출시 보일러 온도는 10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외출' 기능이 있는 보일러는 해당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 겨울철 외출시 전기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전원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동파될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겨울철 보일러 고장시 시설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각 보일러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대표번호로 연락해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 90% "4차산업혁명 전담 인력 없다"

중소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응조사

전담 인력·조직 보유 '5.3%' 응답
72% 현실 고려한 정책 부재 이유로

중소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고작 10곳 중 1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이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비 노력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4차산업혁명 대응조사'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이 전체의 90.7%에 달했다.

나머지는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5.3%), '외부 업체 위탁'(2%), '타 업무와 함께 수행'(2%)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0.6%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 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72.0%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부재'를 꼽았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전략 부재'(14.3%), '모호한 정책 목표'(13.7%),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12.7%) 등도 뒤를 이었다.

제조 현장 대응 실태와 관련, 응답 기업 25%는 4차산업혁명의 의미와 관련 기술만 알고 있는 '대응 1단계'라고 답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을 도입했다는 기업은 전체의 16%에 그쳤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53.7%로 가장 많았다.

/김승호 기자

소·부·장 국산화 시동 ... 투자관리체계 구축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기술특위 운영 심의·확정

정책제도실무위·기술실무위 설치
R&D·기초·원천기술 확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부장 기술특위)를 개최해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을 심의·확정했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정책, 투자 전략, 성과관리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구성됐다.

소부장 기술특위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재·부

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는 등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소부장 특위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신속·유연한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초·원천 기술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연구계의 좋은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와 민간의 교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회 소부장 특위에는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위 산하에는 정책제도실무위와 기술실무위가 설치돼 특위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품·장치·서비스 등 정부연구개발 성과 구매 촉진을 위해 정부연구개발성과의 구매실적이 있는 수요기업에게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기술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날 비공개로 논의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안)'은 이번 소부장 기술특위의 토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중소·중견기업 잡 페스티벌... 740명 채용

성장잠재력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박람회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 91개사와 청년·중장년 구직자 4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월드클래스300·글로벌

선도기업·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술 혁신 우수기업과 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으뜸기업 등 일자리 우수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참여기업들의 초임연봉은 3468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인 3530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대기업(4086만원)과 중소기업(2769만원)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들은 행사를 통해 740명을 채용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교원, '홈케어 멤버십' 선포... 서비스제품·일정 직접 선택

기다릴 필요없이 일정에 맞춰 서비스

교원그룹은 웰스(Wells)에서 렌탈업계 최초로 '홈케어 멤버십'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홈케어 멤버십' 서비스 기간은 3년으로, 구성 제품에 따라 매달 5800원부터 1만6500원까지 내면 된다.

교원 '홈케어 멤버십'은 홈케어 서비스를 1회씩, 단발적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나 기다릴 필요없이 고객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제품과 관리 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에어컨과 같이 여름을 앞두고 홈케어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도 기다릴 필요없이 원하는 일정에



교원그룹은 렌탈업계 처음으로 '홈케어 멤버십' 서비스를 내놨다고 4일 밝혔다.

맞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우선 홈케어 멤버십은 서비스 상품 구성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며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다. 홈케어 멤버십에서 선

보이는 품목은 총 4가지로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과 매트리스다. 고객이 3개 제품을 패키지로 구성할 경우 패키지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일회성 상품 대비 최대 17% 싸다. 다만, 홈케어 멤버십 이용은 자가 소유 제품만 가능하며 렌탈 제품은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홈케어 멤버십'은 3년간 각 제품의 관리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일정은 고객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매트리스는 관리 주기를 3개월, 4개월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